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AUTUMN, 2020

가을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9월 1일(화) ~ 11월 30일(월)
/ **접수기간** 8월 3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565-0877~8
서재점 624-0500



푸른방송 문화센터 개관 25주년 100th 수강 감사 이벤트!

하나. 푸른방송 문화센터가 100만원 쓴다!

가을학기 수강회원 중 추천을 통해 각 지점별 총 100만원 상당의 무료 수강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20년 8월 3일 ~ 8월 31일 (9월 7일 발표)
참여대상 : 가을학기 정규강좌 등록회원
경품안내 : 50,000원 무료수강권 (감삼점/서재점 각 20명 추천)



두울. 카톡 플러스 채널 추가하고 수강할인권 받자!

카카오톡 <푸른방송문화센터>플러스친구 채널을 추가하신 모든 분께 수강할인권(5천원)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20년 8월 3일 ~ 8월 31일
참여방법 : 1. 카카오톡 상단의 톨바기 아이콘 눌러 '푸른방송문화센터' 검색
2. 푸른방송문화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3. 플러스채널 1:1 채팅으로 [이름], [핸드폰번호],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적어 메시지 발송
ex) 김문화 / 010-1234-5678 / 개인정보수집동의



세엣. 문화센터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을학기 수강등록 회원 선착순 100명에게 Coffee bite. 룬블랙 커피상품권(1매)을 드립니다.



네엣. 푸른방송 상품가입하고 문화센터 무료수강하자!

8~9월 중 푸른방송 상품(방송/인터넷) 신규 가입하시면 가입 상품 수에 따라 푸른방송문화센터 50% 할인 및 무료 수강의 기회를 드립니다. ※가입자 본인 및 직계가족만 적용(증빙서류 첨부)



푸른신문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제1,133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달성 지역신문
www.prsim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과 SP 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크린골프 : 053) 584-0775

헬스 연건회원 댄스·요가·필라테스·스피닝 무료수강!
자우나 헬스 100% 참나무
24시간 골프 연습장
300대 주차장 완비!
대일역 2번 출구 대백마트 뒷편

포장이사 전문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통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상생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랑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지면안내»

지역	>	03~09면	>
고령·성주	>	12·13면	>
지역사랑 페티너	>	15면	>
특집	>	16~17면	>
종합	>	18~19면	>
기고	>	20~21면	>
교육	>	23~24면	>
문화	>	26~27면	>
건강	>	28~29면	>
운세·날씨	>	30면	>
퍼즐	>	31면	>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성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개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12일 개관식을 가졌다. 신관 1층의 농공읍 장난감도서관도 함께 개관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증축 공사는 민선 7기 김문오 군수의 현안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1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93.67㎡ 규모로 추진되었다. 1993년 건립된 본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설 노후화와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복지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신관을 수평 증축함으로써 종전 본관 건물과 연결해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신관에는 1층에 장난감도서관과 자원봉사자실, 2층에 소강당과 사회교육실, 3층에 탁구장과 노래방 시설을 갖췄다. 옥상에는 야외 테크와 화단을 조성해 문화·교육·복지·여가 등 다양한 주민행복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본관 건물의 지상 3층 탁구장은 여가활동실로 용도를 다각화했고, 지하 1층 요가 프로그램실은 이용자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당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8천 7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한 신관 1층 농공읍 장난감도서관은 184㎡ 규모에 대여실, 소독 및 세척실을 갖추고 있다. 유아의 다양한 신체적 감각 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연령별 맞춤형 장난감 470여 점 대여와 생후 3~36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모차를 대여하는 '유모차 대여사업'을 병행 운영하게 된다.

김문오 군수는 "달성군 종합사회

복지관 신관의 증축과 농공읍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앞으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광환)은 서비스제공사업(청춘대학, 다문화가족지원, 여성취창업교육 등),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주민리더교육, 자원봉사자개발관리 등), 육포·다사·하빈 복지센터 운영 등 35종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회원 수 6,785명에 달하는 등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성군 시설하우스 벼 재배 첫 수확

달성군 구지면 고상국(45) 농가는 몇 년 전부터 조생종 품종인 '황금보라' 벼로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벼 조기재배를 시도하여 지난 11일 성공적으로 1,600㎡ 정도의 올해 첫 벼를 수확했다.

농가에서는 쌀 외관 및 밥맛이 양호한 조생종 벼인 황금보라를 대구 지역에서 가장 빠른 4월초에 모내기



년 인공적인 재배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첫 수확에 이르게 됐으며, 조기 수확으로 일찍 햅

쌀 판매가 가능해 농가소득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서구문화원은 영상을 통해 우리주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달서구문화원UCC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요강

- ▶ 출품자격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 공모내용 : 제한 없음
- ▶ 출품규격 : 순수창작영상
 - 작품분량 - 1분 이상 3분 이내
 - 해상도 - 720x480이상(1280x720이상 권장)
 - 파일형식 - mp4, wmv, avi
 - 제작기간 - 전년도 ~ 당해 연도 제작영상에 한함
- ▶ 출 품 수 : 1인 또는 1팀(4인 이내)당 2작품 이내, 입상 시 상금은 입상작품 건당 지급
- ▶ 참 가 비 : 없음
- ▶ 접수기간 : 2020년 8월 6일(목) ~ 2020년 9월 28일(월)
- ▶ 접수방법 : 1)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사이트<www.dalseo.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cc704ds@hanmail.net)로 접수
2) 유튜브 사이트에 응모작 업로드 후 URL 제출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 개별 아이디로 접속→응모작 업로드
_제목 : "작품제목"[제2회 달서구문화원UCC공모전]
3) 웹하드 데이터 업로드(아이디:ds704cc , 패스워드:ds5544800)
< 1)필수 / 2),3)중 택1 >
- ▶ 심사일시 : 2020년 10월 10일(토) 예정

유의사항

- ▶ 모든 응모작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창작 아이디어야만 함(표절 작품은 수상에서 제외)
- ▶ 상업적 목적이 있는 응모작은 시상에서 제외
- ▶ 수상작의 저작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부담
- ▶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 수상 후 위작 또는 표절 등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및 법적조치
- ▶ 공모에 채택된 UCC영상물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등), 초상권, 상표권 등 일체의 법적문제가 없어야 하며, 무료음원사이트(유튜브 라이브러리, 문체부 공유마당 등) 이용을 권장
- ▶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 응모작은 공익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시상내역

초·중·고등부	
상별	인원
대상(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상)	1명 상장수여
금상(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상)	1명 상장수여
은상(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장상)	2명 상장수여
동상(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장상)	2명 상장수여

대학·일반부	
상별	인원
대상	1명 상장 / 상금 150만원
금상	1명 상장 / 상금 80만원
은상	2명 상장 / 상금 각 50만원
동상	2명 상장 / 상금 각 30만원

입상작발표

-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홈페이지 <www.dalseo.or.kr> '공지사항'에 10월 21일(수) 발표 (개별통보 없음)

시상식

- ▶ 2020년 10월 26일(월) 18:30 '푸른방송'

문의

-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TEL 053)554-4800

| 주최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 후원 | 달서구·달서구의회·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푸른방송(주)·푸른신문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160 별관2F TEL:(053)554-4800 FAX:(053)553-4800

<본 공모전은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 개최합니다.>

지역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푸른신문

03

주민 밀착형 '국가 암 검진 홍보단' 운영

달서구, 지역 최초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0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국가 암 검진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달서구는 지역의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밀착형 홍보활동을 위해 지역 최초로 국가 암 검진 홍보단을 구성·운영한다.

* 2019년 국가 암검진 수검률: 전국평균 42.05%, 대구 37.44%, 달서구 37.66%

22명으로 구성된 국가 암 검진 홍보단은 암 관련 교육 참석 및 행사 등에서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 등洞 단위 국가 암 검진사업 민간 홍보대사로서 역할할 예정이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경북지역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생활터사업과 연계해 홍보단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암 예방수칙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



국가암검진홍보단 위촉식

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홍보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생활 속 암 예방과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아가

지역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홍보단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평생학습으로 공유공동체 조성

달서구, 공유네트워크 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대구광역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한 공유네트워크 촉진 사업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자원과 사업을 발굴·활용해 주민 편의 제공 및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달서구는 '공유 밥상과 공유 냉장고로 성매이 식구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했다.

성당동 나눔협동조합과 함

께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와 돌봄 공유 기반 조성을 위한 '공유 밥상 및 돌봄 사업' 운영, 먹거리를 공유하는 '공유 냉장고 사업' 및 독거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반찬나눔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민행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으로 장애인 성장 지원과 경

력단절여성 피부미용사 양성

과정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 장애인

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자녀 사회성 강화를 위한 동물매개놀이 학교 사업과 장애인의 알코올, 약물 등 중독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

자리 창출을 위한 '피부미용

취·창업 사업'을 전문교육

단체와 연계해 추진한다.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학습 문화 정착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 새마을회, 사랑의 반려화분 나누기

달성군 새마을회(회장 이성근)는 지난 12일 다육식물 화분 100개를 만들어 관내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반려화분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반려화분 키우기는 원예치료의 일환으로 식물을 키우면서 경제적,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화분을 매개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넓은 달서구·달성군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에 대해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유통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적시성 _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빠른시간내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카탈로그성 _ 소품안내 역할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직업체험의 나라로 떠나요

상인3동, 지역아동의 직업탐방 스토리 사업

달서구 상인3동(동장 장건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경애)에서 지난 12일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의 직업탐방 스토리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의 직업탐방 스토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문화와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달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투게더 문화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부산 키자니아를 방



문하여 경찰서, 드라이빙스쿨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 시설을 경험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신

나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진짜 직업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좋았다며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건기 상인3동장은 “자신의 꿈과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꽃 정기구독 하세요’ 싱싱한 꽃 우편으로 받는다

달서구에 사는 강유진씨는 얼마 전부터 꽃 정기구독을 시작했다. 평소에도 꽃을 좋아했지만 동네 꽃집이나 대형화원에 가서 꽃을 고르는 게 매번 번거로웠다. 동네 꽃집에서 산 꽃은 금방 시들기도 하고 싱싱하고 저렴한 꽃을 구입하기 위해 큰 화원에라도 갈라치면 오고가는 기름값에 주차비, 꽃을 고르느라 하루 종일 진을 뺐다. 그러던 중 우연히 꽃 정기구독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월 2회 꽃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다.

“공부에 지친 고2 딸을 위해 꽃으

로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는 강씨는 전문 플로리스트가 매달 제철 꽃을 선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동네 꽃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싱싱하고 꽃이 오래간다며 매달 꽃이 배달되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꽃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기사도 시험 삼아 주문해 보았더니 익일배송이 되었고 보냉처리된 박스 안에 너무도 싱싱한 꽃다발이 흐트러짐 없이 담겨 있어 깜짝 놀랐다. 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하다. 또한 꽃다발 사이즈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주기도 월 2회가 기본이지만 조절할 수도 있다.

소유를 넘어서 공유, 구독하는 소비시장의 변화와 코로나로 그 시기가 빨라진 언택트(untact) 서비스의 확대 속에서 정기구독은 시간과 돈을 아끼는 스마트한 소비형태다.

코로나로 침체된 화훼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장마 후 폭풍 찌는 폭염 속에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드는 꽃 정기구독 서비스,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서순옥 객원기자



생활문화동호회 HOT 플레이스 달성군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추가 모집

(재)달성문화재단은 지난 6월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를 함께 극복하고자 진행된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공모에 이어 추가 공모를 시작한다.

지난 공모를 통해 공예, 음악, 미술, 문학, 무용, 댄스 등 다양한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총 22팀이 선정되었다. 특히 도농지역인 달성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원 가꾸기 동호회 등 이색적이며, 참신한 장르의 동호회들이 선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달성군에 활동공간을 두고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

상의 동호회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음악, 미술, 댄스, 공예, 문학, 연극은 물론 취미·여가 활동인 요리, 다도, 꽃꽂이, 발명품 개발 등 생활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된 동호회는 ‘생활문화 프로젝트(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발표회)’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동호회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 속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역량 강화를 위한 경비 일부와 대외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젝

트 수행 경비 일부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053-659-4283)으로 하면 된다.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053-659-4283)으로 하면 된다.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053-659-4283)으로 하면 된다.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053-659-4283)으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재)달성문화재단>

상인2동, 건강보조식품 꾸러미 지원

달서구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조은혜)는 상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수)와 함께 지난 10일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에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하는 ‘안다미로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상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안다미로는 ‘답는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로, 매년 대상자를 달리하여 안다미로 꾸러미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아동 및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및 혈당관리를 위한 유산균·멀티비타민 세트, 당뇨환자 영양식으로 구성된 안다미로 꾸러미를 전달했다.

조은혜 상인2동장은 “안다

미로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께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인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2만년의 역사가 달서구에서 깨어나다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전시콘텐츠 영역 착수보고회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8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전시콘텐츠 및 공간 구성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달서구는 월배지역에 광범

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선사유적을 한샘공원 등 4개 공원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로 탐방사업을 진행 중이며, 거점공간 마련을 위하여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번 용역은 원성동에 건립계획인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의 전시콘텐츠 및 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용역이다.

용역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선사문

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전시기본계획 ▲공간구성 ▲체험콘텐츠 구성 등 체험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

할 계획이다.

한편,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759.04㎡이며,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유나몰리 053-581-1624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
성화0 엠에스(주) 053-583-8257	경리 사무원(제조)	무관	월 210만 원 이상
배진철강(주) 053-592-6096	경리 사무원	무관	월 190~200만 원
(주)금성7업물류 053-598-0525	도로 운송 사무원 (배차사무 포함)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00%)
(주)하나원(파티)티 053-583-0485	경리 사무원	무관	연 2,200만 원 이상
■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독산0엔지 053-568-0391	프레스 금형 제조원	무관	월 250만 원 이상 (상여 200%)
동원산업 053-584-4248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주)유진엠에스 053-581-4266	기타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무관	월 250만 원 이상
한창원배0주식회사 053-257-1551	농업용 및 기타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고졸 이상	월 220만 원 이상 (상여 50%)
엘에스텍 053-589-8326	케트캠 기능원	무관	월 200~350만 원 (상여 50%)
건화성공 053-582-4740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무관	연 3,500만 원
(주)예기 053-581-8573	금속절곡기 조작원 (벤딩기 조작원)	무관	시급 85,900~90,000 원
신흥기계 053-587-2760	공업기계 조립·검사원 (공작기계 제외)	무관	월 310만 원 이상 (상여 330%)
■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윌터도 053-581-117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미성화학 053-581-1333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네임칼라뱅크 053-629-8891	제조 단순 종사원	중졸 이상	시급 85,900원 이상
(주)대한철원 053-598-3461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30만 원 이상
한진산업 053-588-9682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종교이투미리치킨 053-566-9998	소규모 매장점장 (매장매니저·매장수퍼바이저)	무관	월 220만 원
신한정공(주) 053-719-6337	해외 영업원	전문대졸 이상	연 3,500만 원 이상
승리금속공업사 053-581-3311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00~210만 원
케이비산업 053-582-4800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50~260만 원
세화다이캐스팅(주) 053-594-3544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20~240만 원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1805-6508 www.work.go.kr/caeguseobu			

재 미 를 담 다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두류3동 삼대(三代)가 ‘두류두류 평안한 건강마을 만들기’

달서구 두류3동(동장 장석태)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남윤덕)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에게는 ‘백세 건강상자’를 지원하고, 아동에게는 ‘치(치킨)!빵(케익)!데이’ 행사를 통해 살기 좋은 두류3동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류두류 평안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두류3동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청주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 서비스연계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해 ‘80을 넘어 100으로, 우리마을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인구 중 22%가 65세 이상 어르신인 두류3동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마을로 어르신들이 ‘80을 넘어 100세 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면역력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백세 건강상자(종합영양식 및 건강파스)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치(치킨)!빵(케익)!데이(Day)’로 지정하여 월 1회, 5개월간 생일 잔치를 열어준다.

장석태 동장은 “나눔에 동참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두류두류 평안한 건강마을 두류3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길 씨 내정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대표이사로 서정길(66·사진) 대표이사가 내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정길 대표이사는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문인협회 이사, 달성문인협회장,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을 거쳐 지난 2018년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단을 이끌어 왔다. 서정길 대표이사는 재임 중 민선7기 달성군

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 A등급, 기관장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서정길 대표이사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재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자료제공:달성문화재단>

평생 길러먹은 콩나물이 건강장수 비결

화원에 사는 조수환(84) 할아버지는 오래된 취미이자 습관이 있다. 이제까지 시중 콩나물을 한 번도 사지 않고 직접 콩나물을 길러 드신 것.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콩나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요즘 평생 콩나물을 길러 드셨다는 할아버지의 정성과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렵던 지난 몇 달 동안 독거노인들을 위해 콩나물 키우기 키트가 유행했었다. 혼자 계신 노인 분들에게 좋은 소일거리가 되고 코로나 블루도 예방하고 건강도 챙기는 인기 아이템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유행했지만 난 평생 손수 길러 먹었거든. 내 건강비결은 바로 이 직접 키워 먹는 콩나물 덕분이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며 직접 길러 먹는 콩나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거창한 콩나물시루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직접 만든 콩나물시루를 보여주신다. 다 쓴 페트병을 반으로 자르고 불에 달군 송곳으로 물구멍을 충분히 낸 후 양옆에 끈을 달았다. 그리고 싱크대 수도꼭지 위에 걸어두면 오며가며 물주기도 편하고 배수도 편리하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콩나물시루의 핵심 포인트는 페트병 한 쪽을 세로 길이로 깊게 잘라 놓은 것.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진가는 금방 확인되었다. 다 키운 콩나물이 시루에 꽂 차게 되면 없어서 꺼내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 잘라놓은 옆트인을 벌려주면 손쉽게 콩나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다. 작지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주변 이웃에도 많이 나눠 주었다면서 기자에게도 하나 건네는 노부부의 선물을 받고 보니 이미 건강해진 느낌이다. 간간 장마로 채소 값이 금값이 되어 버린 요즘 직접 길러 먹는 콩나물로 건강도 부식비도 살뜰하게 챙겨보자.

서순옥 객원기자



안전사고 예방한 시민에게 감사패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안전사고 예방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지난 12일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의 천장판이 처져 있는 것을 신고해 자칫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시민 신종현(男·53)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고마운 뜻을 전달했다.

신종현 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용지역 부근을 지나던 중 용지역 하부 천장판에 빗물이 스며들어 고이면서 처짐이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경찰, 도시철도공사 관계 직원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천장판을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만약 천장판이 떨어졌다면 지나다니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신고로 사고를 막은 것이다.

홍승환 사장은 “시민들께서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향후에도 도시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사람, 보고싶은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 yellowID@gcsch4
☎ 053-551-2002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뿔났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이슬이슬한 시사쇼!

▶ JTBC 일요일 밤 7:40



모든 집에는 주인장도 모르는 물건들이 산다? 연젠가 술 거 길아서... 버려지나 아까워서... 팔자니 귀찮아서...? 당신의 집에 잠든 물건, '유랑마켓'이 대신 찾아드립니다. 스타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통해 주인과 직거래하며 이웃과의 훈훈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 잠든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50분

악의꽃 이란?
14년간 사랑해 온 남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연쇄 살인자로 의심된다면? 사랑마저 연기한 남자 화성과 그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 지현.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 마주 선 두 사람의 고밀도 감성 추격극이 시작된다.

한 부부가 있다. 두 사람은 14년 전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다.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 아래에는 비밀과 거짓말, 잠자고 있는 진실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 어쩌면 사랑은 무지에서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의 믿음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믿음의 강도만큼 배신감이 뒤따르고 진실의 강도만큼 고통이 뒤따를 테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레미 집 없는 아이

인생 멘토와 함께 꿈과 가족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한 한 여행! 거둬되는 시련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하던 레미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알게 되는데... 과연, 레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언더워터

해저 11km,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 깨어났다! 어두운 심해에 무언가 그들을 바짝 따라오고 있다. 불가사의한 포식자와 쫓고 쫓기는 위험천만한 게임에 갇혀버린 대원들. 살아남기 위해선 남은 용기를 전부 쥐어 짜내야만 한다. 살고 싶다면 모든 감각을 깨워라!



시청방법 ▶▶▶
메뉴 → VOD시보기 → 영화 →극장동시상영관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렴달서 조성을 위해 힘쓴다

달서구,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8일,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청렴마인드 제고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청렴 특강’ 및 ‘나만의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직원청렴마인드 향상 및 청렴한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18일에는 2층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내용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한다.

이날 특강은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가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인가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21일 오후에는 정형화된 집합형 교육에서 벗어난 청렴비



누만들기를 실시한다.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 실천의지를 되새기고 청렴한 달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등으로 2019년 국민권의

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종합청렴도 II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전 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예방중심의 부패방지 교육뿐 아니라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 추진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달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 호우피해 자매도시 담양군 위로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도시 담양군을 돕기 위해 구호품과 서한문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군청 직원들과 함

께 정성껏 마련한 성금 천여만 원과 고압세척기(20대), 마스크(4,000매) 등 2,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달성북지재단에서 지원한 이불(700채), 벽지(80박스) 등 1,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농협 달성군지부에서 지원한 생필품 키트를 포함해 함께 4,000여만 원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이동빨래차량’ 1대를 현지에 긴급 지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대구시 테니스협회 계명대에 발전기금 2억

대학 여자 테니스부 발전 위해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가 계명대(총장 신일희)에 대학 여자 테니스부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12일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 백승희 회장(사랑모아 통증의학과 원장)은 계명대에서 대학 여자 테니스부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구광역시 테니스협

회는 이날 5,000만 원을 전달하고, 매년 5,000만 원씩 4년간 총 2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계명대와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는 2018년 5월, 대학 여자 테니스부를 창단·육성해 대구시 테니스 발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협약과 관련해 대학 여자

테니스부 육성에 필요한 장학금과 훈련비용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속했었다. 계명대는 2020년 신입생 선발을 통해 여자부 3명, 남자부 3명으로 구성된 테니스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백승희 회장은 “지역의 체육인재를 많이 배출해 대구 지역의 명성을 높이는 데 계



최측부터 백승희 대구테니스협회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명대와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큰 결실을 해 주서 변정식 기자

와룡윗공원 ‘애국지사 김병욱 송덕비’ 조선문학 연구로 민족의식 고양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와룡윗공원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야외 분수가 있어 여름이면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의 명소이자 휴식공간이다.

이곳에도 순간 스쳐 지나칠 수 있는 곳에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

공원 중앙의 시원한 분수 바로 옆 몇 그루의 나무가 우거진 잔디밭 위에는 애국지사 김병욱 선생의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김병욱(1920~1993) 선생은 1940년 12월 대구 사범학교 재학 중 몇 명의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항일 결사 단체 무우원을 결성했다.

무우원은 조선문학 연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문화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또한 무우원이라는 항일 내용을 담은 인쇄물과 기관지도 발간했다.

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도 무우원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다 1943년 6월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44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애국지사 김병욱 선생의 송덕비는 일제 해방 이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적을 세운 선생의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마을주민들에 의해 건립 되었으며 처음 파산동 야산에 있던 것을 1996년 4월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기자가 취재자 공원을 찾았을 때도 몇 번 두리번거린 후에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외의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며 송덕비에 관한 내용이 나 안내 문구 하나 없이 비만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은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와룡윗공원을 찾아 시원한 분수와 함께 우리지역 애국지사의 숭고한 민족혼을 느껴 보기를 권한다.

김재훈 객원기자



CREATIVE MEDIA GROUP



요트원정대
YACHT EXPEDITION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메이저리그
독점 중계!



내가 가장 예뻤을 때
2020.08.18. (수) 밤 9시 30분 첫방송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내 손 안의 즐거움



SHOW
CHAMPION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Fun Again!"



CREATIVE MEDIA GROUP





푸른방송 VOD로 즐기는
Summer Action! Festival

기간 내 푸른방송 VOD 특집관 “썸머 Action! 페스티벌”의 영화 구매자 전원에게 <마블 캠핑의자>를 드립니다.

기간 : 8월 20일 ~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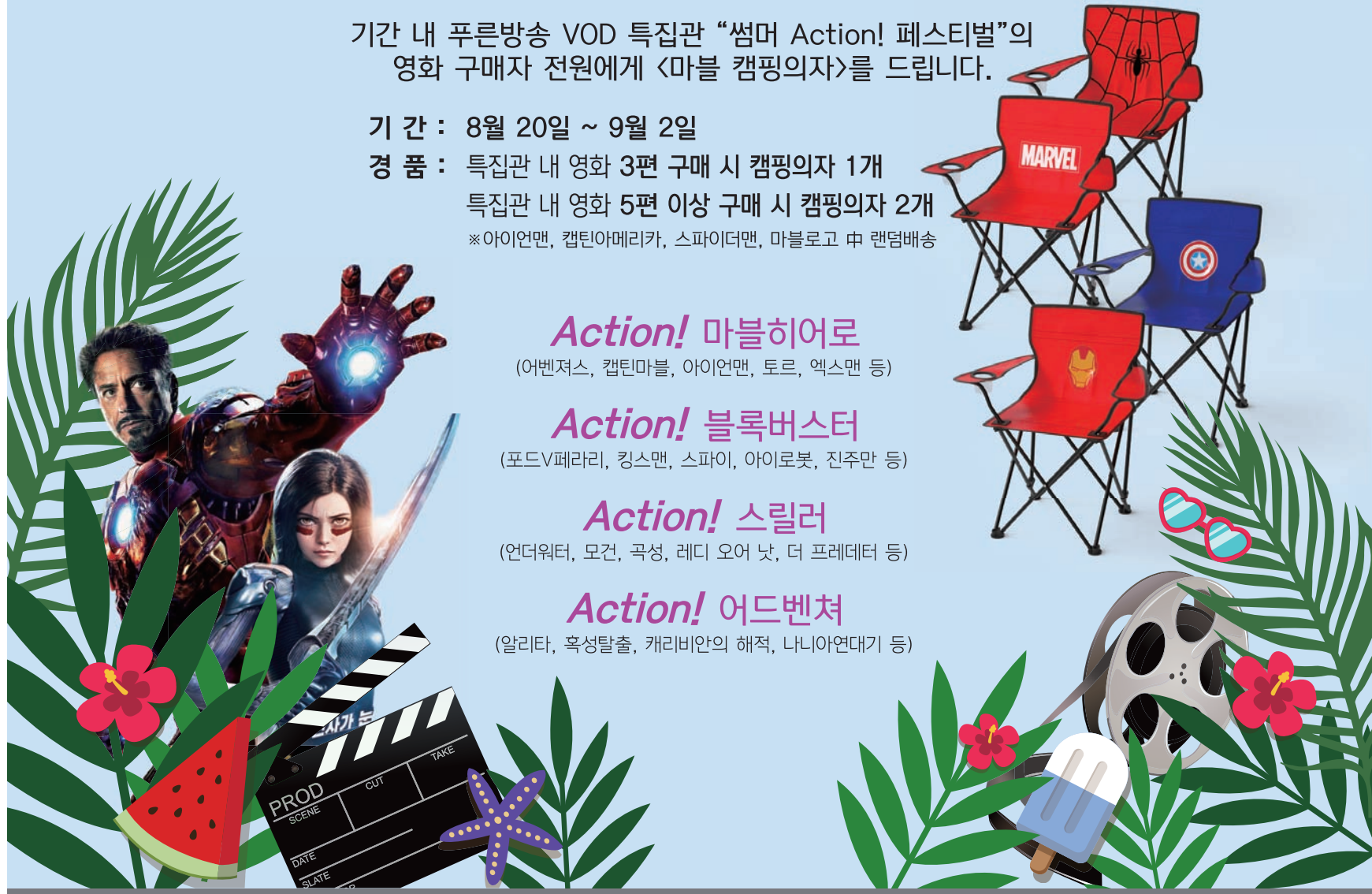
경품 : 특집관 내 영화 3편 구매 시 캠핑의자 1개
특집관 내 영화 5편 이상 구매 시 캠핑의자 2개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마블로고 중 랜덤배출

Action! 마블히어로
(어벤져스, 캡틴마블, 아이언맨, 토르, 엑스맨 등)

Action! 블록버스터
(포드V페라리, 킹스맨, 스파이, 아이로봇, 진주만 등)

Action! 스릴러
(언더워터, 모건, 곡성, 레드 오어 나트, 더 프레데터 등)

Action! 어드벤처
(알리타, 혹성탈출, 캐리비안의 해적, 나니아연대기 등)



- 본 이벤트는 VOD 콘텐츠 제공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 고객 중 해당 VOD 구매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리모컨으로 해당 VOD 상품을 직접 구매 또는 고객센터(053-551-2000)를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의 경품은 푸른방송 고객가입정보에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중도 해지자 및 단체 가입자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푸른방송 공식 SNS에서 우리지역소식과 각종 이벤트,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053) 551-2000

더 행복한 고령군 만드는 아이디어

2020 군정시책 일반인 우수제안 선정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13일 '2020 군정시책 제안 일반인 부문'에 대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은상 2건 등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시책제안 공모 일반인 부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고령군은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전체

제안 중 중간심사를 통과한 10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금상은 없으며, 은상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자동세척장 운영'과, '아파트 벽면 활용 군정 홍보 그림자 조명광고 추진'이, 동상에는 '문화의 거리에 형형색색(形形色色) 모형 은행나무 설치'가, 장려상에는 '관광자원 홍보방안', '한 눈에 확인하는 우리동네 공약사업', '회천교 교각 주변 대가야 상징 조형물

설치'가 각각 채택됐다.

채택된 우수제안은 향후 실시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들도 모두 소중한 아이디어이므로, 도움이 되는 제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히스토리텔링 공연 '기억과 공감, 그 날'

6·25전쟁 70주년 기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지난 11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복홀에서 보훈단체 회원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히스토리텔링 '기억과 공감, 그 날'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내·외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경북 출신 국군을 주인공으로 한 가상의 창작 단막극 공연과 그 시기를 주제로 한 짧은 강연으로 진행됐다. 우리가 겪었던 6·25전쟁과 그 속의 삶과 희생, 기억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이어나갈 국가수호의지와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던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보훈가족의 예우 증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우수기업인 표창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매출증대 등 기여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0년 상반기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코로나 19에 슬기롭게 대처한 2020년 상반기 우수기업인 4명을 선정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은

효성금속㈜ 박상인 대표이사, 무석정밀(주) 김옥대 대표이사, 명진(주) 신철수 대표이사, 유영종합포장 김영희 대표로, 표창을 통해 기업의 사회진자 및 지역기업 주체로서의 책임 의식을 고취했다.

곽용환 군수는 기업인의 경쟁력이 곧 고령군의 경쟁력인

을 강조하고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기업 진화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광고문의
053. 572-6000



고령군가가호호치매환자센터 운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치매환자센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8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치매환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가호호 치매환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가호호 치매환자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인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

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예방운동, 인지재활훈련, 미술치료, 기억력과 집중력 훈련, 시각 및 지각 훈련 등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총 8회기에 걸쳐 제공한다. 치매

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약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센터 운영 시작 전에 어르신들의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개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깊어지는 대화, 넓어지는 생각 남독콘서트 개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13일 대가야고등학교 강당에서 고령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 출신인 신철휴 선생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남독 콘서트를 가졌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가야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독콘서트, 전통 타악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학교문화 예술 공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생

들 간 거리두기, 모든 학생 및 출연진들의 체온 측정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내년 농사 대비 고온기 참외하우스 및 토양관리 철저하게

겨울철 온난화도 대비해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교)는 본격적인 고온기(高温期)를 맞아 성주참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온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고온으로 인해 작물의 호흡량이 많아지면 광합성률이 낮아져 당도가 떨어지고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하우스 내부 온도가 40℃ 이상 올라가면 꽃이 수정되지 않고 떨어지며, 50℃정도가 되면 생장점이 말라죽게 된다. 또한 지온이 30℃ 이상 되면 뿌리틸의 발생이 억제되

어 양수분 흡수가 억제되고 뿌리의 호흡이 왕성해져서 동화산물(동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물질)의 소모가 많아지므로 품질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온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형과(畸形果) 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

고온에 의한 장해를 방지 않도록 환기를 잘하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광막이나 차광도포제를 사용하여 강한 햇빛을 차단해 줌으로써 참외생육을 조정해야 한다. 특

히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인해 올해는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등 병해충도 심하게 발생하므로 작용기작을 달리하는 농약을 5~7일 간격으로 살포하여 방제해야 병해충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조기폐경농가에서는 토양선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온기에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되, 토양을 완벽히 밀봉하고 1회 물을 충분히 주어 한 달 동안 토양온도를 높여야 토양선충 밀도를 95%이상 줄일 수 있다.

염류집적이 심한 농가에서는 염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담수처리(물 걸러대기)를 하거나 수단그라스를 이달 30일 이전까지 파종하여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

서성교 소장은 "긴 장마로 인하여 참외생육이 불량한 때 고온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품질저하와 병해충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농작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현장 영농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내 아이를 위한 2020 옐로파파 참가자 모집

옐로파파는 최고의 놀이동산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내 아이를 위한 2020년 옐로파파 프로그램 참가자를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10가족 단위 아빠-아이 단체 육아활동 프로젝티이며, 부모 교육, 미술심리상담,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활동

되는 '옐로파파' 사업은 '같이하는 함께육아, 가치있는 행복육아' 실천을 위해 성주군민 아빠-아이 단체 육아활동 프로젝티이며, 부모 교육, 미술심리상담,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활동

을 통해 남녀 공동 육아 문화 확산 및 저출생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옐로파파 참가 대상은 5-8세 아이를 둔 가정으로 1회차[9. 4(금)] 나눔바자회, 2

회차[9. 12(토)] 참외피를 팝파티, 3회차[9. 19(금)~9. 20(토)] 아빠랑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청서 등 서류를 이메일(wonyeo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성주군홈페이지 참조 및 성주군청 기획감사실 ☎054-930-6032)

이병환 군수는 "세종대왕자

태실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우리 성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문화와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내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기회의 장으로, 함께육아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별고을민화연구회 경북미술대전 잇달아 수상

특선 3점, 입선 6점

성주군 별고을민화연구회는 (사)한국미술협회경상북도지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제47회 경상북도 미술대전에서 특선 3점, 입선 6점의 작품이 입상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번 미술대전에서 조현경(책가도), 이미자(평양감사행렬도), 김미령(이봉상초상화)가 특선을 수상했으며, 황영순(어해도), 장형식(기명절지도), 박인숙(황룡도), 이양숙

(화조도), 김수진(심장생도), 원경희(문자도(충))가 입선을 수상했다.

성주군 이병환 군수는 "별고을민화연구회는 단순한 여가생활을 넘어서 큰 대회에서도 인정받는 수준 높은 작품 활동을 펼치는 단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면서 "성주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별고을민화연구회는 2014

년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민화에 취미를 가진 지역 주민으로 조직된 이래, 현재 2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봄마중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한국미술대전, 대구시전, 경상북도전, 한국민화진흥협회 공모전에서 특선 32회, 입선 37회를 수상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햇플 최적지 성주호 둘레길에 머물다

금수면, 'Again 성주!, 희망경제 광명'에 앞장

성주군 금수면(면장 하기호)은 'Again 성주!, 희망경제 광명' 범군민 운동 일환으로 성주호둘레길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직원 둘레길 걷기를 실시했다. 성주호둘레길은 가야산선비산수길 제1코스(총길 23.9km)이며, 금수면직원 걷기는 문화공원에서 출발해 백운정, 구강재, 호수의 추억, 청탁장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성주호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주호 둘레길 이외에도 아라월드 수상스키, 모트보트도 이용할 수 있고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무학계곡의 배바위, 선바위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여름철 더위도 날려버리기 최적지로 추천할만하다.

<자료제공:성주군청>

태풍 피해가구 지원

성주군은 지난 7월 태풍 장미로 피해를 입은 9가구 18명에게 모포, 세면도구, 의복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피해가구 중 주택 침수 및 붕괴 위험과 같은 집중피해를 입은 2가구에 대해서는 ʼ보물창고ʼ의 기증을 받아 이불을 전달했다.

(주)보물창고는 선남 동암리에서 각종 침구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현금·현물 기탁, 봉사활동을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주)국신필터 대표이사 성낙철 사랑의 냉장고 전달

(주)국신필터(대표이사 성낙철)는 지난 13일 성산면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사랑의 냉장고 1대(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성낙철 대표는 고령

군 성산면 강정리 출신으로 현재 개진지방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2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행을 몸소 실천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지역사랑 파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종독 농아버섯백숙
 * 농아버섯오리백숙 ₩55,000
 * 농아버섯닭백숙 ₩50,000
 * 농아버섯곰탕 ₩10,000
 * 농아버섯국 ₩12,000
 T.635-3434

기타(타구)지역

카페 투다트 달궁산점
 대구시 파계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기타

Q 24시
 타이,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서로 20 (4층)
 (구. 삼민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래, 명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절 / 직접방문! /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진로코칭북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담코칭센터 인투케어 070-4306-1201

생민가 참숯가마 참숯 생삼겹살 맛집
 생민가 숯가마
 ☎ 053.852.0035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86-8

산골장어 · 아나고 전문점
새기장아라고
 ☎ 053. 586. 9988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99-1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더욱 **'따뜻한 봉사'**
 터미널 무료급식(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및 물품 후원 조동철 이사장 010-9195-1878

인터넷 쇼핑몰 **"레드방"**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

공간과 사람들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

우리 동네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 4
 우리 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제보 및 가입 A/S **551-2000**

H 현대해상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일자리 찾기 힘든 대구의 환경속에서 남겨놓은, 경력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업무**: 현대홈쇼핑 방송 시청 후 보험상담신청 고객에게 관련 상품 안내후 가입진행
 • **근무조건**: 09:20~18:30 (주5일) / 점심시간 70분 / 간식시간 30분
 • **수당**
 1. 실적별 기본급+성과수당(인센티브)
 2. 보너스수당(2개월마다)
 3. 유직관리수당 4. 장기활동수당 5. 각종시책
 ※ 현재 근무중인 상담원 60여명 월평균급여 250~300만원 (상위권 500만원이상)
 • **모집연령**: 20세~60세(남여불문)
 • **정착지원금**: 1차월~3차월 최저보장 각 100원 지급
 - 배우고 정착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 **근무장소**: 대명동 남대구우체국빌딩 11층 (교대역 2번출구)
 ★ 면접참석시 교통비 10,000원 지급 ★ 교육 기간 중 중식제공
 ★ 입사확정시 상품권 50,000원 지급 면접일정 등 기타 상세문의는 전화주세요~
문의: 053-717-6062 / 010-8293-3788

취사 가능한 펜션형 모텔
 거제 남부 관광명소 최적의 위치
| 파타야 모텔
 예약 055) 633-2340
 010.2598.5196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2길1-1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1회 19:40 오케이 마담
 2회 21:35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3회 23:30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문의: 984-8008 www.cine80.co.kr



꿈, 추억 그리고 희망

대구에서 30분!!

엄마, 아빠 추억속으로 ...

성주 추억 박물관으로 초대합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주중 특별할인

30% → **50%**

30명 이상 단체 (평일 기준)
 24개월 미만 무료
 일반문의: 054-932-5800
 단체 문의·예약: 010-7669-2220

성주 추억박물관에서 엄마, 아빠의 추억을 나눕니다!!

- 곤충전시관 / 만화, 비디오 / 추억의 오락실
- 추억전시관 / 체험관 / 미니카트랙 / 피규어전시
- 추억의 갤러리 / 엄마, 아빠 어렸을적 추억교실
- 추억의 농기구 전시관 / 기차체험 / 추억 농장 : 토끼네집, 염소네집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사진전 개최

‘ViewFindThe’ 展, ‘20c초 대구, 대구인의 삶’ 展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김형국)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대구사진비엔날레가 연기됨에 따라 금년 가을 특별 기획전을 준비했다. ‘현대사진예술의 흐름’을 확인하는 전시와 ‘20c초 대구, 대구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전시가 그것이다. 먼저 ViewFindThe 展은 9월 25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문화예술회관 1~5전시실에서 개최하며, ‘20c초 대구, 대구인의 삶’ 展은 9월 23일부터 10월 29일 까지 문화예술회관 1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ViewFindThe’ 展

대구사진비엔날레는 대구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로서 동시대예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보이는 세계적인 사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현수, 김화경, 박승만, 이계영, 이동욱, 이병록, 이삭, 이영아, 전술지, 하춘근 등 10명의 작가가 참가하여 작품을 선보인다.

‘ViewFindThe’는 카메라의 ‘viewfinder’라는 명칭을 차용하여 구성된 타이틀이다. ‘뷰파인더’는 촬영자와 카메라간의 첫 번째 접촉 지점으로써 카메라의 역할보다는 촬영자의 역할이 우선된다. 이러한 ‘촬영자의 역할’이라는 맥락을 통해 동시대 예술계에서 ‘사진’이라는 매체 그리고 장르적 위치를 진단하고 고민한다.

김현수의 31480㎡ 시리즈는 현대사회의 구조물에 집중한 작업이다. 작가는 현실 세계의 놀이터라는 장소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서 비롯되는 즐거움, 자유로움, 역동성의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고 하나의 잘 다듬어진 조형물로 바라보며 그것의 인공적인 형태만을 강조한다. 외형이 조금씩 다를 뿐 특정한 형태와 기구로 정형화된 놀이터라는 장소를 통해 현대사회의 획일화된 구조를 낱살게 보여준다.

김화경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돌아온 도시, 서울에서의 삶을 기록한다. 한 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매 순간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며 그만의 방식으로 도시에 적응하고 있다. 그의 화면에는 그가 바라보는 가장 지금의 활나의 순간이자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1/1000초의 순간이 오히려 담겨있다.

박승만은 사물, 공간, 남겨진 사람과 기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할아버지의 흔적을 좇으며 그의

죽음을 추모한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촬영한 ‘경계’ 시리즈는 작가의 죽음과 남겨진 흔적에 관한 관심을 보여준다. 작가에게 있어 이 사물들은 가시적인 죽음의 흔적 파편 중에서도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그 경계에 놓여있다고 여겨지는 흔적이며, 작가는 물리적 형태를 지닌 것들을 소멸 직전의 모습으로 위치시켜며 구경자의 경계를 보여준다.

이계영 작가는 현대에 이르러 자본이 어떻게 공간 혹은 장소를 상품화하여 잠식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의 변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제주의 변화, 근대화를 시작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산 등을 관찰하며 오늘날 자본을 통한 공간(장소)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도 다른 자아를 발견한 경험에서 작업을 시작한 이동욱작가는 “Woz(무엇 때문에)” 시리즈를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뒤영진 인체를 통해 작가는 그동안 두려워 외면하고 싶었던 수많은 자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무수히 충돌하고 있는 내면을 드러낸다.



박승만 ▼

오랜 시간 화학공단에서 일한 이병록 작가는 회색 파이프라인에 색채와 감정을 입혀 끝없이 이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파이프라인 풍경’을 만든다. 작가가 매일 일하고 생활하며 마주한 익숙한 장소에서 사람의 모습을 모두 배제한 뒤 가상의 디지털 풍경으로 다시금 재현했다. 파이프라인의 패턴을 복제, 대칭하며 구성한 상상의 풍경을 통해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해 현대인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삭 작가는 뻘뻘이 들어선 좁은 골목과 점포의 풍경을 관람객에게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 좁은 골목길에서 온종일 상인들이 바라볼 효율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점포와 그 벽을 재현함으로써 인간이 매일 바라보는 풍경과 조망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집단에서 밀려난 개인으로 정의하는 이영아 작가는 ‘감만탕’ 시리즈를 통해 목욕탕이라는 장소에서 엄마의 존재와 부재를 담담하게 써내려간다. 작가는 사진을 기반으로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기억의 아카이빙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전술지 작가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을 기록한다.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누구나 보았던, 누구나 본 적 있는 반복되어 지나치기 쉬운 일상을 간직하고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풍경을 저장한다.

하춘근 작가가 2016년부터 시작한 일본 원자폭탄 투하 시리즈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인 1945년 8월 6일과 나가사키 1945년 8월 9일을 상징하기 위해 806장의 사진과 809장의 사진을 중첩했다. 전쟁, 테러 등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국내외의 역사적 장소에서 찾은 휴머니즘의 오류를 찾는다. 전시를 기획한 박천 기획자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예술에 대한 태도를 중점으로 보는 전시로 이 전시를 통해 사진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화경



김현수 ▼



‘20c초 대구, 대구인의 삶’ 展

이 전시회에는 20c초 대구의 자연, 도심 가로, 대구인의 배움과 성장, 생업과 일상을 소개하는 사진 1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선보이는 사진은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국채보상기념관 등 외부기관에서 협조 받은 사진들도 포함됐다. 원본 사진은 염서 형태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졸업 앨범, 유리원판, 대구와 관련된 옛 책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전시내용은 대구의 자연환경, 도심가로, 전통건축, 근대건축, 대구인의 배움과 성장,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구성됐다. 전시 흐름은 시간과 공간의 자연스런 진행 과정에 따라 관람되도록 했다. 먼 곳(자연환경)에서 가까운 곳(도심가로), 조선시대(전통건축)에서 일제강점기(근대건축), 통치기관(행정사법기관, 군부대)에서 주민 편의기관(대구역, 우체국, 은행)으로 유년시절에서 중년의 어른으로 생업과 일상에서 여가와 휴식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구성됐다.

전시실 중앙에 경주 주상절리의 모습을 형상화 한 상징물을 두었다. 이 상징물에는 일제에 저항하고 옥고를 치렀으면서도 지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애국자들을 사진으로 나타내어 대구인의 의지와 기

상을 높이고 전시회의 품격을 더하고자 했다.

또한 새로 발견한 사진을 다수 선보이게 되었다. 도원동, 내당동, 진천동의 옛 모습과 가창면 우록리 사람들, 희도학교 학생의 뱃놀이, 대구에서의 사교적재, 무덕전, 수성교와 신천교의 모습도 선보인다.

똑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시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여럿 전시한다. 선화당, 망경루, 관공루, 대구부청, 경북도청, 대구역, 종로, 북성로 거리 등이다. 이들 사진을 전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춘천박물관, 부산시박물관 등 많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12년 만에 옛 사진에

관한 전시 도록을 발간하게 되어 의미를 더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수집된 사진을 더욱 풍부히 도록에 수록하게 됐다. 해상도가 낮거나 사진 크기가 작아 전시하기 어려운 것들은 전시는 되지 않았지만 전시 도록에 수록해 전시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옛 사진에 관해 대구에서 오랜만에 큰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면서 남녀노소 모두 그 때 그 시절을 회상하고 소통하기에 좋은 전시회이다. 많은 이들이 지치고 위축되어 있는 요즘, 전시회를 통해 대구의 옛 모습과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역 앞 거리

1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전시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전시 관람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7시 50분까지 가능하며,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하고 방문해야 관람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37.5℃ 이상 발열 보유자는 입장이 금지되며, 손소독과 체온측정 후 코로나19 관련 설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 입장할 수 있다. 관람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관람 동선을 지키며 관람하여야 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대구 문화 예술 회관 홈페이지 (<http://artcenter.daegu.go.kr>) 대구 사진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www.daeguphot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다시 방문하고 싶다

내국인관광객 91.3%, 외국인관광객 83%

국가승인통계 ‘2019 대구관광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27.2%(’18년 55만 9,000명→’19년 71만 1,000명), 내국인 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19.9%(’18년 661만 3,000명→’19년 793만 2,000명)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성장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9 대구관광실태조사’는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 1년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국내외 관광객 3,000명(내 2,000명/외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구 주요 관광거점 17곳에서 설문지(내국인 45개 문항, 외국인 36개 문항)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 중 91.3% 이상이 대구를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

외국인 관광객이 대구여행 시 방문한 관광지(중복응답)는 ‘서문시장(야시장)’(33.8%), ‘동성로/중구시내일원’(31.0%), ‘김광석 도시 그리기 길’(25.2%), ‘이월드(83타워)’(18.9%), ‘대구수목원’과 ‘수성못/수성유원지’(각각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83% 이상이 대구를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적 만족

도(4.12→4.23점)와 재방문율(19→24.4%), 재방문 의향(3.98→4.11점), 추천 의향(4.06→4.17점), 쇼핑 경험(90.6→92.1%), 숙박경험(88.4→90.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해 대구관광 부분 주요 지표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 뚜렷한 질적 성장을 이뤄 냈음이 확인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구여행에 대한 이미지도 여행 전과 여행 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여행 후에 대구 이미지가 ‘좋

다’고 응답한 관광객이 86.4%로 여행 전(69.4%) 대비 17.0%가 상승했다.

2019년 대구관광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대구시민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구통계포털(stat.daegu.go.kr)통계간행물)대구관광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모두에게 열려있는 여행을 꿈꾸며 ‘무장애 관광 발대식’

관광 접근성, 편의시설 등 관광약자가 직접 점검

2020년 대구·경북 무장애 관광지 모니터링 점검단(약칭:그린나래단)이 14일 대구예술포럼소 수창홀(3층)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4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7월에 모집 선발된 장애인활동가(지체/시각),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32명(대구 15명, 경북 17명)이 공식 점검을 시작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대구·경북 무장애 관광지 모니터링단(약칭:그린나래단)은 모든 사람들(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이 제약 없이 편리하고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발됐으며, 대구·경북 주요 명소를 모니터링(교통편, 관광지, 편의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함에 따라 대구·경북의 무장애 관광지를 발굴·점검하게 된다.

‘그린나래단*’은 대구의 주요 명소인 이월드(83타워), 서문시장 야시장, 근대골목, 모노레일 체험을 비롯해 경북관광지인 하회마을, 부석사, 경주보문관광단지 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 총 46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일부 지역은 대구와 경북 관광지를 서로 교차해 조사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가야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대가야 산림녹화기념숲’

고령군 대가야읍에 70ha에 달하는 면적의 산림 녹화기념숲은 식물, 숲, 치유를 테마로 하는 수목원이다. 시설 부지 만해도 10ha이며 특히 황폐했던 산림을 지금의 울창한 숲으로 가꾼 산림녹화사업의 ‘대표작품’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숲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위치에 산림녹화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2004년부터 5년간 진행한 산림조성과정정을 하나의 영상으로 시청이 가능하며 수석전시실 및 향기체험실도 함께 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숲 속 놀이터, 분수광장, 조형물 광장, 분경·분재관, 암석원, 대나무길 등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 그중에서도 숲 속 놀이터는 단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산을 배경으로 한 숲 속 놀이공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맑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평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볼만 모습과 다를 수밖

에 없다.

조형물 광장에서는 의미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가야금에 탄생한 지역 특성에 맞게 12개의 기둥을 한 조형물이다. 더군다나 아래에 위치한 아지형의 돌은 지산동 고분군을 상징한다고 한다. 대가야 고령과 산림녹화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입구에서 보이는 느티나무 길을 따라 들어가면 한 여름의 무더위도 한 번에 날려버릴 바닥수가 설치되어 있다. 아이들은 물세례를 맞으며 신나게 놀고, 어른들은 시원스럽게 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산림녹화기념숲을 정면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뒤쪽의 경지에서 붉은 색의 다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다리는 금산을 기념숲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밤에는 경관조명이 들어온다. 고령 시가지를 한 눈에 보고 싶다면 다리 근처의 팔각전망대로 가면된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대가야 고

령군을 볼 수 있어 기념숲을 찾은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드르는 곳이다.

대가야 수목원이라고도 불리는 산림녹화기념숲은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지산동고분군,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 여러 가지 대가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여럿 있어 아이들의 역사탐방 기회도 되고 아름다운 수목원에서 가족이 자연을 만끽하며 숲 해설도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고령의 여행지가 되겠다.

문의) 054-950-6576 **이원욱 객원기자**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에서 안전한 여름휴가

농촌체험마을 ‘구암팜스테이마을’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에 ‘구암팜스테이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안심 여행지를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침체된 농촌으로 여행을 유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은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운영, 배상책임보험 가입, 응급처치 교육 이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농촌체험농장을 말한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된 ‘구암팜스테이마을’은 팔공산 미대동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다.

7~8월은 방울토마토, 옥수수 수확 체험, 9월부터는 알밤 줍기 등 다양한 수확체험을 소규모(1~5명)로 가능하며 이 외에 식(食)체험, 공예체험은 20인 이상 단체로 체험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구암팜스테이마을(http://www.gooam.com/)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암팜스테이마을 관계자는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을 믿고 찾아주시는 체험객들에게 안전하고 힐링되는 여행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걸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9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료제공: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대구 도시문제발굴단 2기 본격 운영 실시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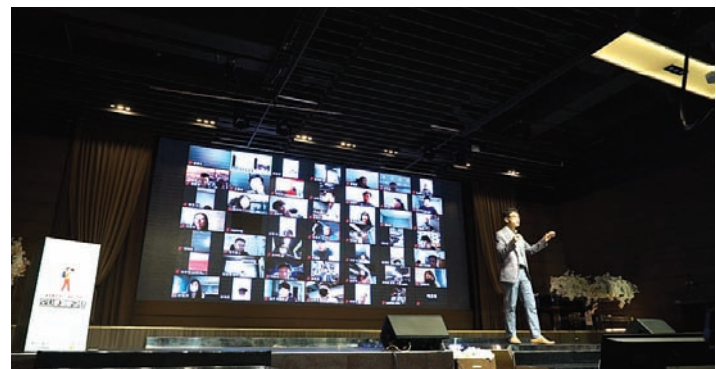
대구는 지난 6일 대구상성장조캠퍼스(중앙컨벤션센터)에서 ‘스마트시티 도시문제발굴단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시티 주요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비대면 만남을 가졌다.

도시문제발굴단은 시민을 중심에 두고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의 설계·구축·운영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똑똑하고 따뜻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모임이다.

이번 2기 도시문제발굴단은 도시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92명, 도시문제 발굴 분과토론의 조정역할을 담당해 줄 도우미 12명 그리고 발굴단 지도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1기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오는 11월 12일까지 공공의료, 자원재생 등의 분과를 구성하여 도시문제의 이해, 문제 정의, 해결 아이디어 도출, 기술 전문가와 기술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지난해 운영한 도시문제발굴단 1기는 ▲151명 시민 위원 ▲시민과학자 76명 양성 ▲도시문제 15개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5개 발굴과제 중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해결 ▲미세먼지 저감 ▲청소원 귀갓길 안전서비스, 3개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 중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창업에 DASH 하라!

대구 기술창업 온라인 허브, DASH(DAegu Startup Hub) 공식 오픈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대구지역 기술창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허브 ‘DASH’(http://startup.daegu.go.kr)를 14일 오픈해 대구지역 창업의 아이콘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구시에서 운영해 왔던 온라인 포털인 대구창업지원포털을 전면 개편, 1년여 구축 기간과 베타 서비스를 거쳐 ‘DASH’로 새롭게 태어났다.

분산되어 있던 대구지역 30여개 창업지원기관들의 모든 지원사업 공고와 입주공간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8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VC리뷰*와 창업라운지 내 기업홍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VC(Venture Capital)리뷰: 위험성은 크나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리뷰포스트,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기업에서 작성하는 투자보고서를 의미함

특히, DASH 내에 Dash-Point제도와 회원등급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사용자(창업자, 투자자, 기관 담당자, 전문가)들은 DASH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냐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일정 수준이 되면 기프트콘 등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창업신, 유니콘, 데카콘 등으로 승급하게 되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이다.

그동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기업 데이터베이스(기업정보, 기업성과) 관리 및 지원사업 성과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해 창업자와 지원기

관 모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향후 우수기업 발굴 및 부진기업 여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DASH 모임, DASH 고객센터, 창업영상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 간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4일부터 2주일 간 오픈 이벤트도 진행된다. DASH에 회원가입 후 ‘유니콘을 찾아라’, ‘응원메시지 남기기’, ‘오타찾기’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130. 현풍관아 부속건물 원호루와 현풍군수 홍필주

1)프롤로그

지금의 현풍·유가·논공 일원은 신라시대에 추량화현 또는 삼량화현으로, 구지 일원은 구지산 부곡으로 불렸다. 이 네 지역은 고려시대에 현풍현이 되어 조선시대 내내 현풍현으로 불리다가, 조선말인 1896년(고종 33) 대구부 현풍군이 됐다. 현풍현의 중심은 지금의 현풍읍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읍의 주요관청 자리는 상당수가 조선시대 때 그 지역 관아가 있었던 자리다. 지금도 주요 관청 주변에 초등학교·향교·비림(碑林)·누정 등이 많은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이는 현풍도 마찬가지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현풍초등학교·현풍향교·사직단·석빙고·원호루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달성군민체육관 옆에 있었던 비림은 과거 인근 구쌍산과 비석걸이 등에 있던 송덕비 38기를 한자리에 모아 둔 것이었는데, 2016년 지금의 달성군청 뜰로 옮겼다. 현풍초등·현풍향교·사직단·석빙고에 대해서는 이미 본 지면에서 다룬바가 있다. 이번에는 과거 현풍관아 부속건물이었던 원호루(遠湖樓)에 대해 알아보자.

2)「현풍읍지」에 나타난 현풍관아 부속건물과 누정

1786년 발간된 「현풍현읍지」 궁실조에는 객사 건물로 현도관·조양각·응향각과 관아 건물로는 태고헌·근민당·몽서각·향사당·현사훈련당·관덕당·안복당·상정청·호적고·사창·외창·진휼청·대동고가 등재되어 있다. 누정조에는 양풍루·사겸루·대양정·관수정·창주정·일사정·관송정이 나타난다. 한편 1899년 발간된 「현풍군읍지」에는 궁실조에 봉의관·태고헌·정화당·원호루·향사당·현사·장관청·군관청·외청·전부소·호적고 등이 있으며, 누정조에 양풍루·사겸루·영파정·대양정·창주정·학부정·대암정·관수정·낙고정사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 많은 조선시대 현풍관아 부속건물과 누정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대양정·관수정·원호루·낙고정사 정도다. 이 중 대양정·관수정·낙고정사는 특정 문종과 관련 있는 건물이고 원호루는 현풍관아 부속건물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과거 현풍관아 부속건물은 원호루가 유일하다.

3)현존 유일 조선시대 현풍관아 부속건물, 원호루

현풍 읍동산으로 불리는 인봉(印峯) 정상부에 주요 유적 2곳 있다. 현풍 사직단과 원호루다. 원호루는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인 1879년(고종 34), 지금의 자리가 아닌 당시 현풍관아 후원에 처음 세워졌다. 장건주는 현풍군수 홍필주[洪弼周·1857~1917. 흥 군수는 인근 고을수령이나

선비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거나 풍류를 즐기기 위해 원호루를 세웠다. 처음에는 아담한 규모의 2층 누각이었는데, 1957년 중간할 때 기단부를 높이고 건물 전체에 화려한 단청을 입혔다. 이후 1989년 현풍면사무소를 증축할 때 해체, 1997년 현 위치로 옮겨 복원했다.

지금의 원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2층 누마루는 우물마루 양식이며, 사방으로 계자난간을 돌렸고, 누마루 아래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재 계단을 설치했다. 2층 누마루에는 원호루 창건 당시 현풍군수 홍필주가 지은 ‘원호루상량문’과 달성문화원장을 지낸 채수묵 선생이 짓고 조양제 선생이 쓴 ‘원호루이간기문’이 걸려 있다.



원호루 정면



원호루 측면

4)향일에국운동가 초대 현풍군수 홍필주

현풍현은 조선 말기인 1896년(고종 33) 대구부 현풍군이 됐다. 현에서 군으로 승격됨에 따라 고을수령 역시 종6품 현감에서 종4품 군수가 됐다. 초대 현풍군수는 현풍이 군으로 승격하는 해인 1896년에 부임한 홍필주다. 그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최대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말과 대한제국시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항일에국운동가였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고을 수령을 지냈던 홍필주 군수가 항일에국운동가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현풍군수 홍필주의 약력을 한 번 살펴보자.

송은 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홍필주의 본관은 풍산, 자는 사량(士良), 호는 자은(紫隱), 충남 아산 사람이다. 그는 안동군수·안동부사·안동부 참서관·안동 재판소 검사를 지냈다. 1896년 현풍군수로 부임한 그는 농업·양잠·치수에 큰 성과를 있어, 그해 8월 현풍군민들이 만인산(萬人山)을 올려 그에 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1898년 통정대부에 오르고, 1900년 대구군수를 역임했으며, 이후 중추원척임 참의관 등을 역임했다.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자 나철·오기호·이기 등과 함께 신사소청을 설치하여 상소를 올리고 규탄 선언서를 발표했으며,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1906년 대한자강회 평의원, 1907년 2월 계몽운동단체인 대한협회 발기인 및 평의원을 지냈으며, 항일계몽단체인 자신회를 결성해 매국노 처단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을사오적 암살 계획에 실패해 진도로 유배를 갔다. 1908년 사립초등교육기관인 훈도학교를 설립하고, 1911년 국채보상금 처리회 대총회에 총납대료 참여했으며, 대한협회에서 설립한 기호총학원(현 중앙고등학교) 초대 학무부장을 지냈다. 1986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문집으로 「자은선생유사」가 있다.

홍군수는 군수 재임 시에 현풍군민들로부터 ‘만인산’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2년 뒤 정3품 통정대부에 오르고 또 2년 뒤 대구군수에 제수됐다. 만인산은 19세기에 유행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문화다. 고을 백성들이 비단으로 일산(양산) 모양을 만들어 일산 표면 또는 가정자리에 늘어뜨린 비단조각에 고을민들의 이름을 적은 물건을 말한다. 이는 고을수령의 선정에 대한 고을민의 감사를 담은 물건이다. 그런데 홍 군수의 만인산은 좀 달랐다. 아래는 「독립신문」 1899년 9월 11일자에 실린 ‘현풍 만인산’이란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다.

현풍군수 홍필주씨는 얼마나 고을민을 잘 다스렸는지 그 군민들이 만인산을 만들어 서울까지 올라와 여러 곳에다 세워놓고 오기는 사람들에게 돌려 보인다고 한다.

5)에필로그

만인산은 송덕비와 의미가 유사하다. 현 달성군청 비림에는 모두 42기의 송덕비가 모여 있는데 이 중에는 현풍군수 홍필주의 송덕비도 2기가 있다. 이 중 ‘군수 홍필주 청덕선정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한 번 음미해 볼 만하다.

황폐해진 끝에 우리 군수 부임하시니 추위 가고 봄이 왔네. 측근처럼 문치를 이루었고 무성처럼 현가가 울려했네.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힘을 다해 보아 방축을 만들었네. 흉년에 공휼함을 구제해준 사람 4백 명이나 되었네. 빠진 것을 보충하여 빛을 드러냈지만 백성의 비용은 쓰지 않았네. 향교 성전을 고치는데 박풍 내어도 됐네. 강릉에 불이나자 관 고에서 돈을 냈네. 재해 입은 전 곁엔 고루 은혜 배풀었고 백성을 혼내 권장했네. 마음가짐은 청백리라 금을 자갈처럼 여겼네.

목요단상(木曜斷想)

비우고 채우며

책장 정리를 했다. 빗바렌 소실, 시집, 교양서, 어학사전 등등 책장에 잠들어 있던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책장 속에 있었음에도 먼지도 약간은 묻어 나왔다. 책을 읽으면 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먼지가 쌓일 정도로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책들은 버리고 최근의 책들로 책장을 채웠다. 그래도 모아두면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될 것 같은 일부본은 책장에서 빼내 따로 모아두었다.

깨끗해진 책장을 새 책들로 채우니 상쾌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왜 한 것에 집착했을까 싶었다. 한 것에 대한 괜한 욕심 때문에 새 것을 채울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많은 반성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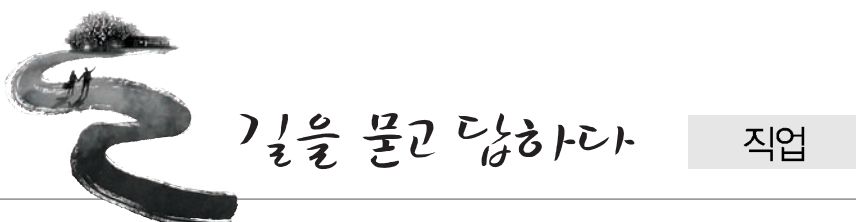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한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리수납사라는 직업이 생겼고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집안을 대신 정리해 주는 내용을 다룬 TV프로그램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버리기’와 ‘비우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한다.

쓸모없는, 또는 쓰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공간을 비우는 일이 정리의 첫 번째 단계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도 없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버리는 것은 새로움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버리는 것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버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버리고 나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공간, 더 이상 없어보이던 공간도 보인다. 버림과 비움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진작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

풍요롭고 보람있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전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욕심, 특히 헛된 욕심은 꼭 버려야 하는데 욕심이 많을수록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평온이 찾아오고 배려가 생겨난다. 중요할 버리면 평화가 찾아온다. 비움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다.

우리 삶 자체가 어찌면 비움과 채움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우고 채우는 가운데 삶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을 비워 많은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 분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공간을 비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칭송과 존경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직업 없이 살 수는 없다. 재산을 물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없다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 우리가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 외에 더 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직업이란 직(職)과 업(業)의 복합적 뜻을 갖고 있다. 직(職)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맡아야 할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고, 업(業)은 벌이의 수단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직업에 대해 어떤 이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어떤 이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든 여기에 서 한 가지 역할만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겐 이 모든 역할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가슴 뛰는 행복한 삶을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직업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직업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직업에 대한 열정의 정도가 좌우되며, 직책수행에서 그의 능력과 발전이 결정된다. 직업을 단순히 생존 수단이나 물질적 행복의 수단, 성공 수단으로만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보람이나 긍지를 도

국민연금 Q&A

Q. 3년 전 미납액을 내고싶는데 못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A.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65



구용 회 건양대학교 교수

통상 평생 동안 직장을 여러번 옮겨 다니게 된다. 예전에는 좋은 직장을 한번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을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 이 평생 직업의 시대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직업도 변화무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제11회 진로진학박람회

대구시교육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언택트 진행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7일 '제11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이하 박람회)를 개막했다. 'Click* '꿈, 미래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22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대입 특강관'에서는 대구진학진로지원단 단장인 도구태 교사(경북대 사대부고)의 '2022 및 2023 대입 제도의 변화와 대응 전략' 등의 특강이 진행되며, 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이 대학별 특성화 학과 및 학사 제도,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 수시 지원 전략 등 특화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1 대입 토크!'이 8회 운영된다. '대입특강관'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진행되므로 참가 신청자뿐 아니라 당일 방문객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이라면 '대학 상담관'을 통해 대학별 입시 정보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수도권 및 지역의 주요 대학과 우리 지역 전문 대학 등 56개 대학의 대학별 2021 대입 전형 주요

사항, 수시 모집 지원 전략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수시 상담관', '자기소개서관', '개별 면접관'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담 예약 시간 30분 전에 원격 상담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송되며, 대구진학진로지원단 교사들과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고1, 2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디자인관'이 운영되며, 대학생 멘토단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대입 멘토-멘티관'도 운영된다.

진로 설정과 진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돕는 '다중지능검사 기반 진로 상담관'이 중3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 실현 동기를 강화해 줄 '전문 직업인 특강관'도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30여 명의 전문 직업인을 원격으로 초빙해 운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는 위기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큼 앞당겨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박람회도 온라인 박람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되는 만큼 온라인이어서 더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가족이 화목해지는 공간' 달서가족문화센터 · 도서관

가족 간에 대화 단절과 소통 부재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4월 개관한 달서가족문화센터는 1, 2층에 도서관이 있고 3, 4층에는 여러 가지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 및 소공연장이 있다.

달서구 조암남로 137에 위치하고 있는 달서가족문화센터

는 이름에 걸맞게 가족 관련 프로그램이 준비하다. 가족 아카데미와 가족문화광장에서는 1년 내내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름 또한 가족 아카데미는 '가화만사성', 가족문화광장은 '가갸호'라 불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아카데미에서는 가족 관련 특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가족문화광장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콘서트, 함께 무언가

를 할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추구하는 바는 하나같이 가족애를 느끼고 가족이 모두 함께 웃으며 소통하는 데 있다.

또한 가족문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강좌가 있어 취미에 따라 배워볼 수 있다. 크게 쿠킹, 바리스타, 컴퓨터, 무용 등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용특화' 과정과 가볍게 누구나가 즐기면

서 배울 수 있는 '일반취미' 과정이 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영유아 과정을 음악, 미술, 외국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따로 운영 중이라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다양한 나이대의 가족 구성원을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1, 2층에 위치한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은 가족문화센터와 함께 문을 열었으며 유아자료실, 초등 자료실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책과 시설들을 구비해놓아 온 가족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책 삼매경에 빠질

수 있다. 청소년 이상 어른들은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면 되고 도서관 및 DVD, 각종 신문 및 잡지 열람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유아 및 초등 자료실의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 종합자료실은 20시까지이며 주말은 모두 오후 5시까지다.

달서가족문화센터 및 도서관은 책을 읽고 취미를 즐기며 관심이 가는 분야를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 좋은 곳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겠다.

이원욱 객원기자

중앙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강생 모집

함께 읽기-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성찰한다

대구중앙도서관(관장 장철수)은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차 프로그램 '전염병과 문학' 수강신청을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dae-gu.go.kr/jungang>)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중앙도서관은 5년 연속

선정되었다. 올해는 '함께 읽기' 분야에 선정돼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성찰한다'라는 대주제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성찰한다'라는 대주제로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인류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문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 삶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문학, 철학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강의 형식에 비해 인문학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것이라 기대한다.

1차 프로그램 '전염병과 문학'은 9월 1일(화)부터 10월 6일(화)까지 10회 운영되고, 진행은 하수정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교수가

맡는다. 전염병을 주제로 한 서양 문학작품 ▲다니엘 디포 '전염병 연대기' ▲알베르 카뮈 '페스트' ▲마릴린 제이스 '격리' 등을 함께 읽고, 질문과 대화, 그리고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2차 프로그램 '한나 아렌트'와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는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김석수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강사로 10회 운영되며 ▲한나 아

렌트의 '과거와 미래 사이' 읽기를 통해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수강대상은 독서와 토론에 관심 있는 성인으로, 수강생은 수업 전 주제 도서를 읽고 수업에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앙도서관 독서문화과 ☎231-2042)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중앙도서관〉

우리 아이 영재로 키워볼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재 테스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영재 학급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재학급에 관해 몇몇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위기의 학교에 근무하는 이준상 교사(34)는 1, 2년 전부터 부쩍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영재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그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예전에 영재는 다른 학생보다 눈에 띄게 특출나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만큼의 신동이었다면 지

금은 영재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익숙해진 사회 환경 때문이 아닐까 말한다. 영재는 다른 아이와 어떻게 다르고 최근의 영재 선발과정은 어떤 기준과 지향점으로 변화되었을까?

먼저 영재 학생의 판정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이것은 결국 영재학생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영재교육에 도입되면서 영재는 단순히 아이큐만 높아 지능이 뛰어난 학생에서 나아가 예술영재, 과학영재, 정보영재 등 어

느 한 분야의 뛰어난 기량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영재로 판별되는 추세다. 특정 분야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가능성만 보이던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다.

영재는 정서적인 면에서도 다른 평범한 학생들과 다르다고 한다. 이들은 높은 과제 집착력을 보여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과제 설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리더십을 갖추는 게 영재의 필수조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사회가 변화에 따라 영재 선

발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지필 위주의 단발성 시험이라 사교육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이제는 교사 관찰추천 및 자기 소개서, 해당 분야의 잠재성 등 다단계 선발로 바뀌었어요” 그중 높은 평가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관찰추천’은 학생을 일정 기간 이상 학습지도하거나 생활지도한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 학습역량 및 생활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잠재력을 보는 부분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의료·보건·복지 융합 교과특성화학교 신규 지정

대진고, ‘Pre-Medical School Program’ 운영

대진고등학교(교장 김희운)는 최근 의료·보건·5복지 융합과정 교과특성화학교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는 시설 및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3년간(’21학년도~’23학년도) 운영하게 된다. 준비기간 올해, 대진고는 지역의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와 연계해 ‘Pre-Medical School Program’을 8월 13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의과대, 치의대, 약학대, 한의대, 수의대, 간호대 방면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약 8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계명대 입학사정관의 입시제도 안내에 이어 진로희망 별로 나누어 계명대 의과대와 약학대 교수, 대구

가톨릭대 약학대 교수의 전공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진고는 의료·보건·복지 융합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신청에 앞서 재학생 대상의 진로 희망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 이상의 학생들이 의료, 약학, 보건, 복지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대구에 이 영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재 교과특성화 학교로 16개교를 지정하여 1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특성화 학교란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교과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하는 학교이다.

후기 일반고 추천 배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중 교과특성과 중점 과정을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과특성과 관련 진로선택/전문교과과목을 최소 26단위 이상 수강하면서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과 학생 자기설계 기반 동아리 활동과 고교특성화학교 운영 관련 성과발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교과중점 학교와는 다르게 별도의 전학조치가 없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선택권이 더욱 확보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의과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캠프에 참여한 1학년 이한결 학생은 “의대 진학을 위해 단순히 높은 성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마음, 의료 상황에서 딜레마를 마주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교수님께서 배움의 유래를 알려주시고 해부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셔서 잠시나마 의대생이 된

것 같아 즐거웠다. 의사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희운 교장은 “코로나19로 학업 공백이 발생하여 불안한 이 시기에 지역 대학과 연계한 프리 메디컬 스쿨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설정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대진고등학교>







GCS Broadcasting Advertisement

성공의 열쇠!

푸른방송 TV광고입니다.

방송광고 하나로 지역신문, SNS광고까지
모든 광고를 한번에 누리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
이제, 푸른방송과 함께 실속있고 합리적으로 광고하세요.



우리지역 채널 No.1 푸른방송 Ch.1
053) 551-2000









































타악그룹 ‘아냐포’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다 함께

8월 22일 오후 5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20 코로나 극복프로젝트 첫 번째 공연으로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의 공연을 22일 오후 5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한다.

서아프리카의 만렙음악을 기반으로 한국정서와 현대적 감성을 접목시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AnyFo’는 말란게부족의 말로 ‘다 함께 연주하자!’라는 뜻으로 함께 어우러짐을 담은 공연을 펼치는 팀이다.

이번에 선보일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Fo’는 2015년 첫 발표부터 5년 연속 전석매진과 2019, 2020년 2년 연속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대중들과 전문가들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모든 관객들에게 아프리카 전통악기(렘베)를 제공해 함께 연주하고, 연주자와 댄서의 몸짓과 즉흥적 리듬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과 율림이 있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각 레퍼토리마다 아프리카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객석의

렘베와 함께 폭발적 에너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아냐포’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의료인과 달서구민에게 50%의 특별할인을 제공하여 문화공연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아픔을 위로 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위해 QR코드(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공연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통해 전 입장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2인, 3인석 등으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해 불편함은 줄이고,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으로만 신청되는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문자로 발송되며 객석 입장 시 문자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을 준비한 이성욱 관장은 “아프리카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아냐포의 공연은 연령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타악 공연이다”며 “관객이 함께 연주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음악의 흥과 에너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발생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 20,000원 / 달서구민, 학생, 의료인 50%할인(문의: 053-584-8719)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소장 우연식)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STAY STRONG CAMPAIGN)’에 동참해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

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디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연식 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릴레이 응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밤낮으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속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참여기관으로 대구지방보훈청을 지목했다.

〈자료제공:국가보훈처〉

제2의 봉준호를 찾아라! ‘제21회 대구단편영화제’ 개막

8월 19~29일까지 중구 오오극장에서 상영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공동대표 김홍완, 최창환)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는 ‘제21회 대구단편영화제’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여름 밤, 다시 만난 세계’라는 슬로건으로 대구독립영화 전용극장인 오오극장 및 북성로에서 개최된다.

개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구단편영화제는 대구의 자랑인 봉준호 감독의 뒤를 이을 역량 있는 영화감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좌석 띄워 앉기, 공연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계획했던 부대행사를 최소화한다. 개막식을 대구단편영화제 네이버TV 채널(tv.naver.com/daeguifilmfest21)을 통해 개막 영상 게재 및 오프라인 개막작 상영으로 전환하고, 시상식을 포함한 폐막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이번 영화제의 관람권 구매는 인디앤티아트(www.indieartcinema.com/movie)를 통한 온라인 예약으로만 가능하다. 좌석 띄워 앉기 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제21회 대구단편영화제에서는 국내경쟁작, 애플시네마 외에도 초청영화, 대구 신작전 영화 등을 함께 상영하며 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다.

국내경쟁작 905편(국 718편, 애니 124편, 다큐멘터리 31편, 혼합장르 32편), 애플시네마 25편(국 20편, 다큐 3편, 혼합장르 2편) 등 총 930편의 역대 최대 작품이 출품됐다.

예선을 통과한 국내경쟁작 25편(국 21편, 애니 3편, 다큐 1편), 애플시네마 9편(국 7편, 다큐 2편)을 포함해 총 45편의 단편영화가 오오극장에서 상영된다.

영화제 심사는 경쟁부문에 초청된 감독들이 직접 심사를 진행해 국내경쟁 부문 대상 1

편과 우수상 1편, 애플시네마 부문 대상 1편과 우수상 1편, 관객이 직접 투표하는 관객상 1편, 지역 영화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애플시네마 베스트피칭 단편 제작지원작 2편(대상, 우수상) 등을 선정한다. 대상과 우수상을 경쟁부문 감독들이 직접 뽑는 만큼 수상 의미의 크다.

올해는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플시네마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지원작 3편, 영문번역지원작 3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영화 외에도 다른 예술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과 예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먼저 ‘디프엔포스터’ 행사를 통해 34명의 지역 디자인 작가가 경쟁작 1편씩을 보고 만든 34개의 영화 포스터를 오오극장과 북성로 ‘대화의 장’에서 9월 19일까지 전시한다.



초명길

또 ‘인디?’(인디제움)’ 행사를 통해 지역 음악가들이 개막작 3편을 보고 3곡의 음악을 창작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공식 SNS로 제공한다. 이 음악을 해당 인디뮤지션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음악공연도 22일 북성로 ‘꽃자리 다방’에서 개최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시민들께서 대구의 대표 영화제인 대구단편영화제를 통해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구단편영화제가 더욱 발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편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21회 대구단편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diff.kr>),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aegu.film.festival>),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diff_2020) 및 네이버 TV(<https://tv.naver.com/daeguifilmfest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629-4424

〈자료제공:대구시청〉

4대 국악명가 정순임 명창의 판소리 한가락

8월 25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잊혀져가는 지역 전통예술의 보존·계승을 오래도록 이어나가고 현 세대들에게 전통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젝트로 명인을 선보인다. 그 첫 번째 무대로 명창 정순임이 25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무대를 찾는다.

명창 정순임은 지난 6월 26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하는 무대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부제로 무대를 꾸민다.

6세에 국악에 입문한 정순임 명창은 15세에 임춘영여성국극단에 합류해 도창을 맡았고 25세에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장석중(거문고 명인, 외증조부), 장관개(판소리 국창, 외조부), 정경호(야생산조, 남동생), 정경옥(가야금병창, 여동생) 등 4대에 걸쳐 국악의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악 명가 후손으로 두루 균형 잡힌 발전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판소리 명가 1호’로 지정받았으며, 2015년에는 문화예술발전기에 공을 인정받아 문화분야 최고영예인 ‘문화훈장 유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또 지난 6월 2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선정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가 ‘인생백년’을 시작으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을 뜨는 가장 극적인 대목으로 애원성 담긴 정순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어 가야금 병창으로 ‘춘향가’ 중 꽃아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사랑가’, 창작 판소리 ‘안중근 의사가’, ‘흥보가’ 중 ‘박타령’ 등 판소리 주요 대목과 남도민요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날 고수 정성룡, 정동렬, 가야금 병창의 명인인 정경옥, 소리에 오영



지, 정해운, 박채은, 우정현이 특별출연하여 우리 소리의 다채로운 보여줄 예정이다. 양악과 현대적인 공연에 익숙해진 시민들에게 국악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고 전통예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우리 소리의 맛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1만 원으로 진행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center.daegu.go.kr),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가전렌탈시대!



상기 제품의 다양한 가전 보유



상담문의 053-551-2000

대구시, ‘코로나19와 식중독’ 두마리 토끼 잡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 등 식중독 예방 컨설팅

대구시는 하반기 코로나19 생활방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 제조업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은 식중독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식품관련학과 등을 전공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이 신청업소를 1:1로 방문해 체크리스트와 오염도 검사장비(ATP측정기)를 활용,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진단하고 잘못된 조리습관에 대한 행동개선을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식중독 예방사업이다. 특히, 생활방역 실천이 중요

시됨에 따라 사업장별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식중독 예방수칙과 점복해 ‘생활방역을 연계한 식중독 예방’이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지역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 등이며, 이달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0개소를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컨설팅 진행절차는 △참여업소 신청 △컨설팅단이 현장 방문해 위해요소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1차 컨설팅 △1개월 이내 미흡사항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2

차 컨설팅 △평가 및 결과분석 순으로 진행되며 향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통해 취약요인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에 코로나19방역과 식중독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소정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이후 조리장 환경개선, 시설보완 등 개선 조치에 적극 참여한 업소는 1년간 구·군에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은 그간 이론교육과 법령 준수 등 단편적인 식중독



2019년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활동

예방교육의 차원을 벗어나, 시설별 식중독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향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의 연계로 재유행 대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업소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93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 등 식중독 예방 사업의 효과로 인해 2019년 식중독 발생 환자는 157명으로, 2018년 245명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대구시청>

건강칼럼



보성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가운데 손가락이 터질 것처럼 저려요

손가락이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린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하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듯 저림이 심해지고 주물러주고 찜질을 해도 크게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손가락의 저린 증상은 목(경추 디스크), 수근관 증후군, 혈액순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중지나 약지의 손가락에 ‘섬광통’의 통증 양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번개가 지나가는 듯한 섬광통을 호소하는 이 증상은 수지굴근(手指屈筋), 즉 손가락을 굽히는데 사용되는 근육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팔과 손목,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한다. ‘저리다’, ‘찌릿하다’,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호소하고, 특히 어떤 물건을 잡고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위해 몸 쪽으로 손을 신전시키는 동작에서 그 통증이 심해진다.

키보드 타이핑, 망치 등의 공구나 요리 기구를 잡고 일하는 사람, 운전대를 강하게 쥐고 긴장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스키 폴대를 꼭 잡고 탄 경우, 골프, 수상레저 등 무언가를 강하게 쥐는 동작에 의해 수지굴근이 단축되어 정중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손을 사용할 때 힘이 빠지고 통증 때문에 힘을 주는 것도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특히 여름이 되면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수지굴근 단축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휴식을 취하고 찜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호전이 된다. 그러나 통증이 강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침, 부항, 약침, 근막 주사, 전침치료, 습부 등을 통해 단축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치료가 도움이 된다.

한방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지만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평상시 손을 쥐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한다. 통증이 자주 생기는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뒤로, 몸 쪽으로 늘려주며 스트레칭을 해준다. 또는 양 손바닥을 마주하고 팔꿈치를 90도로 올리는 동작도 굴근을 스트레칭 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성조한의원 ☎053-564-0401

대구시,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대구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진대피·화재예방·감염병 예방 등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111개소, 2,7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지진대피 등 재난 안전교육,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손씻기 요령, 생활 속 거리 두기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의 지침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구병원 ‘희망캠페인’ 릴레이 행사

구병원(병원장 구자일) 의료진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시민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희망캠페인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구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구병원>

사후관리 횡수 늘수록 전반적 자살위험 낮아져

2019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2019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하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를 제공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 25개소에서 출발해 2019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63개 병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 2020년 현재 65개소

2019년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2만 1,545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1만 2,899명(59.9%)으로, 남성 8,646명(40.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3.0%)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과거 자살 시도 관련, 응답자 1만 6,458명 중 7,366명(44.8%)이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자살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2,679명 가운데 6개월 내 자살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2명(4.7%)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동기는 ‘정신장애 증상’(34.6%)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19.9%), ‘말다툼 등’(10.9%), ‘경제적 문제’(8.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신체적 질병’ 때문에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비율(70대 26.0%, 80대 이상 29.7%)이 정신장애 증상(70대 32.2%, 80대 이상 30.3%) 다음으로 높았다.

자살시도자의 절반가량(50.4%)은 음주 상태였고, 총동적으로 자살을 시도(87.8%)한 경우가 많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계획적(10대 이하 8.7% vs. 80대 이상 20.2%) 자살 시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방법은 ‘약물 음독’(50.1%), ‘둔기/예기’(18.9%), ‘농약 음독’(8.4%)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특히 ‘약물 음독’ 비율(58.0%)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자살을 시도해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36.8%)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만한 방법을 선택했다’에 응답한 비율(38.2%)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관리서비스 동의를 1만 1,740명 중 사후관리서비스를 4회 이상 받은 7,078명(60.3%)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알코올 사용문제 ▶우울감이 호전되고 ▶자살 생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자살위험도*: 사후관리 초기와 4회 진행 후 자살위험도를 비교했을 때 자살위험도가 상인 사람의 비율은 13.8%에서 6.4%로 7.4%p 감소하였고, 하인 사람의 비율은 42.2%에서 62.5%로 20.3%p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역량 1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을 위해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일 이의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살시도자의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개인적·임상적·대인 관계적·상황적·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위험요인과 방어적·보호요인을 평가해 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상, 中, 下로 평가

▶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이 있는 경우는 사후관리 초기 25.7%(1,818명)이었으나 4회 진행 시 15.2%(1,074명)로 10.5%p 감소하였다.

▶ 알코올 사용문제: 사후관리 초기 14.6%(919명)에서 4회 진행 시 11.1%(692명)으로 3.5%p 감소했다.

▶ 우울감: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후관리 초기 63.4%(4,077명)에서 4회 진행 시 46.2%(2,934명)으로 17.2%p 감소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8월 24일 ~ 30일



36년생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추진하면 길보다는 흉이 많다. 48년생 금슬 좋은 부부가 다툼이 많아지는 때이다. 60년생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한다. 72년생 의식은 풍요롭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가지만 몰려날 때를 알아야 하리라. 84년생 밤늦게 돌아다니게 되면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다. 96년생 자신의 앞날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37년생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49년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61년생 잘못된 일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온다. 73년생 자존심을 버리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된다. 85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97년생 배려를 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다.

38년생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50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손해를 안 본다. 6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급할 것이 없다. 74년생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손해가 없다. 8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남에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39년생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어려움을 해결한다. 51년생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용이 중요하다. 63년생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으니 걱정마라. 75년생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취한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눈앞에 있다. 87년생 마음에 맞는 사람과 힘을 합쳐 일을 하게 되니 편안한 모습이다. 98년생 급하게 생각지 마라. 시간이 필요한법이다.

40년생 계획만 세우고 시작을 안 하니 결과도 없다. 52년생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64년생 옛사람의 말을 잘 따르면 큰 이익이 생긴다. 조언을 따라야 한다. 76년생 어려움을 때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외롭다. 88년생 아랫사람을 듣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다음으로 미루어라.

41년생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하지마라. 꼭 문제가 된다. 53년생 일한 만큼 이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잘못된 일은 들어내야 해결이 된다. 77년생 이미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89년생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42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쓸데없이 끼여들지 마라. 5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귀인이 나를 떠나가게 된다. 66년생 사사로이 인정에 매달리면 괴로워지니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라. 78년생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90년생 자신의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

43년생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마라. 함께 해결해야 한다. 55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한다. 꾀를 부리지 말 것. 67년생 신경을 많이 쓰면 오히려 일이 꼬인다. 79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시 피하는 것이 좋다. 91년생 약간의 재물을 얻지만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좋다.

44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욕심 내지 마라. 56년생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면 손해를 본다. 68년생 고생을 한 뒤에 이득이 생기게 된다. 8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니 재물이 쌓인다. 92년생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문제 가생기지 않는다.

45년생 큰물에서 놀게 되니 얻는 것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57년생 길흉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남을 탓하지 마라. 69년생 부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81년생 적은 노력으로 크게 얻으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93년생 일이 지연되지만 결국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고지가 눈앞에 있다.

46년생 주변 사람들과 화합할 일이 생긴다. 58년생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70년생 두세 번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이룬다. 82년생 친한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94년생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니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47년생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은 얻지만 크지 않으니 허무하다. 59년생 정당한 방법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 71년생 거짓말은 들롱 나기 쉬우니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라. 83년생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법이니, 여러 가지 손대지 마라. 95년생 열심히 노력하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더없이 행복한 시기이다.

제공 : 당신의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8월 20일 목요일	8월 21일 금요일
최저 25℃ 최고 38℃	최저 23℃ 최고 37℃
8월 22일 토요일	8월 23일 일요일
최저 24℃ 최고 36℃	최저 23℃ 최고 34℃
8월 24일 월요일	8월 25일 화요일
최저 23℃ 최고 35℃	최저 23℃ 최고 35℃

시시상식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값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시상식사전, PGM 지식엔진연구소

퍼즐



제987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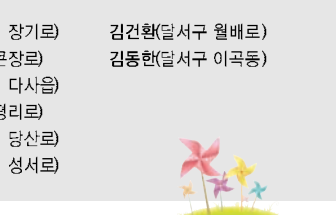
▶보내실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발표 : 1,135호

985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가로열쇠〉

1. 그곳 위까지 수북하게 담은 밥.
4. 직물의 뒤틀린 곳을 그 감의 줄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감는 일.
6. 어떤 병을 앓고 난 뒤에도 남아 있는 병적인 증상. 뇌종양에서의 손발 마비, 뇌염에서의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따름이다.
8.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10.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11. 음식물 가운데 함유된 유독 물질의 성취로 생기는 급성 소화 기관 병. 설사·복통·구토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하는데 원인은 음식물의 부패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익지 않은 과일을 먹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12. 매체 신문, 영화, 잡지, 텔레비전 따위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 또는 그 기관.
13. 대소변을 배설하는 정소로 만든 집이나 시설.
14.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이 고개가 집과 학교를 연결하는 ○○○이다.
16. 우리들의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를 이르는 말. 가톨릭 성당의 이름으로 널리 쓰였는데, 파리에 있는 것이 유명하다.
18.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
19. 조선 시대의 규방 가사. 경상도 안동 지방에 구전되던 것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백발이 된 신세를 한탄하면서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20. 줄기나 가지가 똑질로 된 다년생 식물. 목본식물(줄기나 뿌리가 비대하여져서 질이 단단한 식물)의 총칭이다.
21. 음료를 담는 일회용 병.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가볍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세로열쇠〉

1. 옛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혀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
2. 아기에게 처음으로 밥을 먹일 때에, 밥을 미리 씹어서 아기에게 되먹이는 일.
3. 정오부터 밤 열두 시까지의 시간.
4. 마을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각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 한 번 내는 일이 없었.
5. 피곤할 때에 몸을 주려 피고 팔다리를 뻗는 일.
7.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잠갔다고 생각하는 태도.
8.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공화국. 1829년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해 왕국이 됐으며, 1974년에 공화국이 됐다. 수도는 아테네.
9.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0. 허, 손 따위를 날째게 자주 내밀었다. 들었다 하는 모양. 악을 울리느라 허를 ○○○○ 내린다.
12. 사사로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익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13. 남을 헐뜯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말.
14.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그의 ○○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5.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여행길에서 좋은 ○○○를 만나.
17. 4개의 4짜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대중가요의 한 장르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영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영어로 '빠르게 걸다', '바쁜 걸음으로 뛰다' 등을 뜻한다. 가수로는 정윤정, 현빈, 임영웅, 영탁 등이 있다.
18. 형태, 성질, 동작 따위가 서로 같은 것. 그들은 내외가 ○○○로 마음씨가 고와요.
20. 지체가 높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주인 ○○께서 오라고 하신다.



〈985회 정답〉

윤	통	길	고	추	장	풍
슬	거	푸	집	가	로	수
	조	리	풀			지
무	사	통	팔	달	리	
고	대	세	날	구	명	
	기		메	시	지	불
마	여	의	주		함	
파	운	드	이	중	인	격
람	레	이	아	웃	천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천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 (053) 572-6000팩스 :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sinmun.co.kr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등록번호 대구 다이1130
- ▶간행처 미디어프린팅(주)
- ▶발행인 조강래
- ▶편집인 조강래

☑은행계좌안내
대구은행 002-08-073 862-4
국민은행 680-24-0070-047
농협 794-02-235 282
예금주 : 푸른신문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푸른방송 케이블TV는 채널, 가격은 그대로! 장비 없이 즐기는 고화질 HD방송!

푸른방송 HD케이블TV + 인터넷

월 11,500 원

(부가세 포함, 현대백화점 제휴카드 월 1만 원 이상 결제시)

푸른방송 신규 고객 1개월 무료

8,800 원

푸른방송 기존 고객 시 141,000원
신규 고객 8,800원 시 141,000원 무료 혜택

8,800 원

인터넷방송 서비스
월 1만 원 이상 결제 시
월 3,000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할인

4천원 할인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TV · 아날로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 전화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 서비스 가능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달성군

함께 하는 즐거움

웃음과 감동주는
씨엠씨가족오락대보이

CMC TV

디지털:57
아날로그:37-1

CMC family

1588-0669 www.cmctv.co.kr